

보도 일시	2022. 12. 15.(목) 14:00		
담당 부서	지방재정경제실 재정정책과	책임자	과 장 홍성철 (044-205-3702)
		담당자	사무관 김하영 (044-205-3706)

## 행안부, 지방재정 집행상황 점검회의 개최

- 연말 지방재정 적극 집행 한파 대비 사회적 취약계층 거주상황 점검 등 현안 논의 -

- 행정안전부(장관 이상민)는 12월 15일(목),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주재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지방재정 집행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.
- 회의에서는 ①연말 지방재정 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취약계층·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안정 예산의 최대한 집행을 강조하는 한편, ②한파대설 대비 독거 노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거주상황 점검 등의 보호조치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.
- 이 외에도, ③지방물가 안정관리, ④지방자치단체 우발채무 관리 강화 등 주요 현안에 대해 협조를 요청하고 지방자치단체 건의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.

### 【 ① 연말 지방재정 적극 집행 】

- 행정안전부는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국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민생안정 예산 집행관리와 집행률 부진사업 집중 점검 등을 통해 편성된 예산을 연말까지 최대한 집행할 것을 요청했다.
- 12월 14일 기준 지방재정 집행률은 79.6%로, 전체 예산 552.6조 원 대비 439.7조 원을 집행 완료하였으며, 연말까지 집행 목표(전체 예산 대비 85%)를 차질 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관리해나갈 계획이다.
- 행정안전부는 재정집행 점검 강화, 지역경기 회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소비·투자 지출에 대한 집중 관리 등 목표 달성을 위해 특별한 관심과 지속적인 관리를 당부했다.

## 【 ② 한파·대설 대비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조치 강화 】

- 12월 15일 오전 9시부터 대설특보가 발령됨에 따라,
  -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속한 제설작업 등 교통불편 해소와 재해우려지역에 대한 예찰 강화, 비상대피로 설치, 구호물품 사전 배치 등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줄 것을 요청했다.
  - 아울러, 한파 취약계층(독거노인, 노숙인, 쪽방촌 주민 등)에 대하여 방문·유선 안부 확인 등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마을회관, 주민센터 등 한파 쉼터 지정·운영,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을 강화하는 등 어려움을 겪는 주민에 대해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.

## 【 ③ 지방물가 안정 관리 】

- 내년에도 고물가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,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상반기 지방공공요금 동결, 불가피한 요금인상 요인에 대하여는 인상 최소화를 추진하고
  - 또한 지방자치단체별로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, 업소 특전(인센티브), 포상 등 근거 마련을 위한 지원조례를 조속히 제정하여 개인서비스요금 안정화를 도모해 줄 것을 요청했다.
-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“국민께서 안전하고 따뜻한 연말을 보내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”라며, “겨울철 한파에 대비하여 독거노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고 지역경기 침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연말 재정집행에 총력을 기울이는 등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협력해 나갈 것”이라고 밝혔다.